

# 初歩者를 위한 意匠法入門

## —基礎 意匠 <Ⅴ>—

文 秉 岩

〈前 特許局 審判官〉



### ③ 意 匠

#### (3) 視 覺 性

나. 肉眼으로 識別할 수 있는 範圍의 것.

粉狀物·粒狀物 등은 그것을 구성하는 個個의 物體는 固體로서 一定한 형태를 갖는 것이라 할 지라도 극히 微細하여 육안으로는 認識할 수가 없고 去來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集合體이며 그 集合體에는 그것 自體로서의 固有의 형태도 없으므로 物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이어서 意匠의 대상에서도 除外되는 것이다.

다. 外部에서 보이는 個所

外部에서 육안으로 보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의장이 아니다. 따라서 分解하거나 깨뜨려서 비로서 보이는 곳은 의장이 될 수 없다. 그러나 使用上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뚜껑을 열면 보이는 개소 예컨대 피아노의 鍵盤과 같은 것은 뚜껑을 열면 당연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 된다. 또 담배케이스 등도 2개로 열리기 때문에 뚜껑을 연 그 內部도 의장이 된다.

#### (4) 審 美 性

가. 美의 概念과 範疇

現行 意匠法에서는 「視覺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시각을 통하여……」란 視覺以外的 聽覺, 嗅覺, 味覺, 觸覺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먼저 美가 무엇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莊子는 “美란 充實——바로 그 自體”라고 말하였는데 哲學的인 表現이어서 무슨 뜻인지 理解하기 어렵다. 놀으면 금방 터질 것 같은 능금 빛 불을 가진 少女의 발랄하고 健康한 身體에서 힘이 흘러 넘쳐 破裂할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이 미에 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 하는 사람도 있다.

미란 「깨끗하고 고운 것」과 「醜」와의 사이에 있는 極히 좁은 部分에 存在하는 것으로서 한쪽에 기울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또 다른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醜만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 風流를 읊는 어느 옛 선비는 「미란 草家에 名馬를 매어 둔 것과 같은 것」 또는 「草家 三間에 살면서 말에는 黃金의 안장을 쓰게 하는 것」이라고 多分히 文學的 表現을 하였다. 그런가 하면 「深山幽谷에서 詩歌와 더불어 閑寂한 生活을 즐기는 것」 또는 「市中閑居」에 比喻하기도 하였다.

미의 範疇는 美的으로 調和된 純粹美를 비롯해서 人間의 苦惱와 滅亡이라는 否定的 契機에 의하여 보는 사람의 價値感情을 높이는 悲哀美, 嚴肅한 價値를 集中的으로 表現하는 崇高美, 美的인 基準과 矛盾되는 形態와 行爲로서 보는 사람의 優越的인 自己感情을 풀고 웃음을 誘引하는 漢字로 諧謔이라고 하는 즉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러운 諧謔美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東洋的인 獨特하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幽玄이 있으며 예를 들면 儉素한 趣向,

오래된 雅趣, 洗練된 魅力, 눈에 띄게 華麗함이  
나 수수하고 텅텅하나 깊고 은근한 멋이 다 이  
에 屬한다고 말 한다.

나. 現行法上的 美感

「視覺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 이것을 「미감이 있는 것」으로 解釋한다면 意  
匠으로 登錄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을 것이며  
建築用品이나 機械部品 등의 등록은 不可能하다.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란 미감을 일으키는 誘  
因要素가 있으며 등록이 가능하므로 美的處理가  
베풀어진 의장은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감이란 人間の 美意識에 대해 感得하는 能  
力으로서 이는 時代, 民族, 習慣에 따라 다르고  
또 個人的으로도 教養이나 感情에 따라 差異가  
있기 때문에 意匠法上的 美감은 時代, 地域, 民  
族을 超越하고 個人을 떠나서 共通하는 程度에서  
그치고 반드시 高尚優美하여야 한다는 美的 高  
低는 論하지 아니하되 다만 미감의 有無가 問題  
되는 것이다.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감을 가지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미감」이란 「미를 感得하는 것」이고 「일으킨  
다」라고 하는 것은 「일으킬 수 있도록 되어 있  
다」든지 「일으킬 수 있게 處理되어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란 「미를 느끼  
는 것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게 處理되어 있는 것」  
즉 「美的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로서 「미감이  
있다」 또는 「미감을 가지다」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란  
「미적인 처리가 베풀어져 있지 아니한 것」이 된다.

물론 의장이란 미적인 처리가 되어 있어 그  
結果 높은 미감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의장법  
의 의장을 構成하는 要件으로서는 單純히 美的  
處理가 베풀어져 있으면 足한 것으로서 이를 의  
장의 審美性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적처리도 베풀어져 있지 아니하  
였을 때만이 의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서 즉  
審美感이 없는 의장이라고 해석한다.

다음에 미적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意  
思가 있어 그 의사에 따라 努力이 기울어져 있

는 것으로도 틀리나 世上에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機能을 좋도록 노력  
하면 結果적으로 아름답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서 이를 機能美라고도 말하는바(例:  
工具의 바이트, 컷터 등) 여기서 말하는 「미적  
인 처리가 베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와  
같은 경우도 當然히 포함한 의미이다.

다. 裝飾美와 機能美

繪畫·彫刻 등의 美術은 思想·感情의 表現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마음속에 일어나는 喜怒哀  
樂을 그대로 表現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 自  
體가 목적으로서 그 外에 또 다른 목적과 用途  
가 없는데 反하여 冊床이나 椅子와 같은 實用品  
은 單純히 思想·感情대로 造形된다면 困難한  
것으로서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글씨를 쓰고 책  
을 읽는다는 用途와 앉거나 기대기 위한 機能에  
副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용도를 度外視하여  
강경이나 사상에 쫓아 그 사상·감정을 表現한다  
면 오히려 용도를 해치는 危險性이 따르게 된다.

실용품을 아름답고 멋지게 하는 것은 사상·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단순한 장식으로서 美術  
가가 가지고 있는 美意識이나 技術 등을 장식을  
위하여 使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商品의 品質은 精密度가 높고 耐久力  
이 좋아야 하고 따라서 쓰기에 便利하여 느낌이  
좋아야 한다. 사용할 때 느낌이 좋다는 것은 상  
품의 外形이 그 용도나 기능에 符合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품의 外觀 즉 의장에 필요한 것은 그 기능  
에서부터 올라 나온 外形으로서 장식을 붙이는  
것이 아니다. 不必要한 장식은 오히려 기능을  
해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工業製品的 外觀에  
관한 Industrial design의 理念이다. design이란  
「設計 또는 計劃」이고 industrial은 「工業의」라  
는 의미로서 industrial design이란 「工業製品的  
외형의 設計」라고 한다.

공업제품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그 외형의 設計  
즉 의장이 存在한다.

이 理念은 또 合理主義·機能主義라고도 하는  
데 여기에 말하는 미를 이른바 機能美라고 하는  
것이다.

<계 속>